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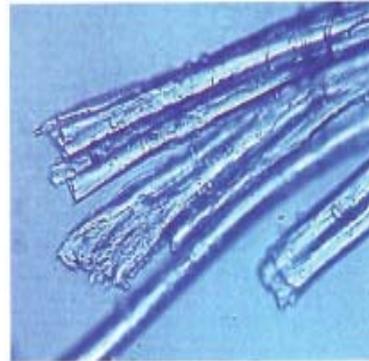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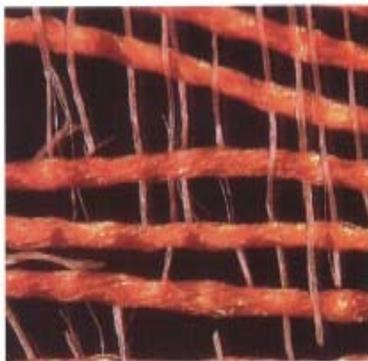
## 218.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

### (85) 무연 생사로 짜진 캐미솔

#### □ 무연 생사로 짜진 캐미솔

#### 해설)

- 드라이클리닝 후 앙상블 제품의 캐미솔(camisole)의 뒷판 윗부분, 특히 양 어깨 부분의 섬유가 떨어져 나감.
- 이 천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경사는 정련이 없는 생사로 가는 무연사(필라멘트사), 위사는 굵은 아세테이트인 것을 알 수 있었음.



- 누에고치로부터 뽑아낸 상태의 생사는 그대로는 끊어지기 쉬워 일반적으로 방적하여 사용됨. 이 제품에서는 누에고치로부터 꺼낸 상태의 5 ~ 6분의 섬유를 그대로 무연사로서 사용하고 있어, 어떤 의미로는 매우 섬세한 멋쟁이 옷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생사의 표면은 세리신으로 불리는 아교질로 덮여 있지만 이 제품을 직접 피부에 닿는 상태로 착용하면 피부의 습기를 흡수해 생사는 한층 약해짐.
- 사고 부분은 등 좌우의 어깨뼈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 제품의 위로부터 윗도리를 착용하면 처음 윗도리의 천과 스치는 위치에 해당함. 이러한 형태로 보아 이는 착용 마찰에 의해서 경사인 생사가 끊어지고 클리닝에 의해서 이미 절단되어 있던 생사 부스러기가 탈락되어 나타난 사고라고 추측됨.
- 현미경 사진에서는 마찰에 의해 생사가 세세하게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자료출처 :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 한국세탁업중앙회, 2011

[www.textilecare.kr](http://www.textilecare.kr)